

# 오션 블루·라벤더 퍼플... 스마트폰은 '컬러 전쟁' 중

소비자 주목 위한 컬러 마케팅  
기존 모델에 신규색상 출시 등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 출시 효과

삼성 '갤 노트 9' 5가지 색상  
LG 'V40 씽큐' 카민 레드 첫선

스마트폰이 화려해지고 있다. 검은 색, 흰색 위주였던 스마트폰의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독특한 이름까지 붙이며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본적인 스펙 외에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제조사는 기존 모델에 신규 색상을 더해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관심 환기와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9 클라우드 실버. /삼성전자



LG V40 씽큐 뉴 플래티엄 그레이, 카민 레드, 모로칸 블루. /구서윤 기자

오션 블루, 라벤더 퍼플과 128GB 모델인 미드나잇 블랙, 라벤더 퍼플, 메탈릭 코퍼, 클라우드 실버까지 총 6가지 모델, 5가지 색상 라인업을 갖췄다.

이 같은 신규색상 출시는 하반기 등장하는 경쟁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과 LG V40 씽큐의 출시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

다. 중국업체의 중저가 스마트폰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색상 출시로 갤럭시 9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환기를 통해 판매량 증가를 노릴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통해 색상에 대한 진화도 계속되고 있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40 씽큐는 뉴 플래티

엄 그레이와 모로칸 블루 외에 처음으로 카민 레드도 선보였다. LG전자 측은 "카민 레드는 기존 라즈베리 로즈 색상보다 채도를 높여 우아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비슷한 색을 두고도 색의 이름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레드를 두고도 버건디 레드, 레드, 라즈베리 로즈 등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X가 출시됐을 당시 기존 갤럭시 S8에 버건디 레드 색상을 새롭게 출시했다.

애플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마케팅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아이폰8 레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놨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색상 출시를 통해 색다른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제품에 새로운 색을 입힘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 출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1~8월 3040 취업자 15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기 후 최대폭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000명 감소한 1227만1000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4만4000명, 4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줄었다.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 3000명 감소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1~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자 수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은 1983년에는 23.0%였는데 2009년 2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5.0%까지 축소됐다.

1983년 5.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올해 1~8월 15.9%까지 확대됐다. 1983년에 1~8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던 20대는 올해 들어 13.8%로 쪼그라들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인텔 CPU 전세계 공급부족에 AMD '반사이익'

14nm 수율 문제 등에 가격 인상  
라이벌인 AMD 제품 선택 증가  
CPU시장 판도 변화 목소리도

최근 인텔 CPU가 전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쟁업체인 AMD가 큰 폭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텔 위주의 현재 CPU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7월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 과제로 추가 수요 충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시점에서 14나노미터(nm) 프로세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외에서도 해당 CPU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14nm 수율(불량 없는 양산 비율)문제가 생긴 데다가 차세대 CPU에 코어가 늘어나면서 웨이퍼당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꼽았다.

인텔은 1월 이후 예상치 못한 45억 달러 수준의 수요 증가 등을 들며 늘어난 PC 수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텔 최고 재무관리자(CFO)이자 임시 최고경영자



14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되는 인텔 8세대 CPU 제품군과 4일 AMD가 공개한 CPU로드맵.

(CEO)인 밥 스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서한을 통해 "게임 수요 등으로 2011년 이후 최초로 PC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텔의 CPU 공급이 의심할 여지 없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밥 스완은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CPU인 제온과 코어 프로세서 생산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인텔이 10억달러(1조1000억원)를 더 투자해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공장의 14나노미터 공정의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인텔의 정책은 시장에서 계속 인텔 CPU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업체가 부품확보를 위해 비싼 가격으로 인텔 CPU를 구입하고 있어 수요가 줄지 않지 때



문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상승한 인텔 CPU의 가격 부담과 물량부족에 호환성이 있는 라이벌 업체 AMD의 CPU를 선택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내 부품업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AMD PC용 CPU 매출이 기존보다 2~3배 상승했다. 소매를 포함해 PC방이나 중소 제조사 등 기업 대상 도매까지 포함된 결과다.

AMD는 올해 성능을 개선한 2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출시했는데 해외 OEM 제조사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다. 9월 27일 디지털타임즈는 "PC 제조업체가 AMD의 CPU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및 ASRock

이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장치의 출하를 가속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인텔 CPU 중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2배 늘어도 매출액 증가는 별로 크지 않다. PC업계는 매출 상승 자체보다 사용자의 인식이 개선될 기회를 잡았다는 점을 더 큰 반사이익으로 본다. 이 때까지 AMD CPU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열이 많이 나면서 전력만 크게 소모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AMD가 기술력에서 더 앞선다는 인식을 줄 기회가 생겼다. 4일 AMD는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릴 '소비자가전쇼(CES) 2019'에서 7nm공정으로 제조되는 세계 최초의 고성능 CPU 및 GPU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텔이 10nm 공정 캐논 레이크 프로세서를 2019년 하반기까지는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에 대조적으로 AMD가 더 앞선 미세 공정 제품을 내놓는다는 의미다.

디지털타임즈는 산업계 소식통을 통해 AMD가 2018년 4~4분기에 30%의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SK이노, 中에 車배터리 분리막 생산공장 건설

소재사업분야 첫 해외진출  
4000억 투자... 내년 초 착공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7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에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과 세라믹코팅분리막(CCS)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중국 등지에 대규모 증설에 나서는 추세와 안정적 수급을 원



SK이노베이션 중국 공장

하는 고객사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장 건설은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의

협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투자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창저우시 진탕구 경제개발구 내 14만5000여㎡(4만4000여평)의 부지에 공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리튬이온전지분리막 생산설비 4기와 세라믹코팅분리막 생산설비 3기가 건설된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0년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된 분리막 제품은 전기차 및 IT용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리튬이온전지분리막 3억4000만㎡, 세라믹코팅분리막 1억3000만㎡ 규모로 추산된다. 완공되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전지분리막 총 생산량은 연간 8억5000만㎡이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 진행을 위해 100% 지분의 중국 내 법인 SK 하이테크 배터리 머티리얼즈를 설립했다.

/김진원 기자 ujin6326@